

● 들어가며 ●

총점 178.46 (논술 : 16.67 / 교육과정 : 70 / 면접 : 44.79 / 수업실연 : 47)

민쌤 인강 패키지 수강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경기도 임용시험 합격생입니다. 저는 3년제 전문대에 다니면서 3학년 초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7월 사이에 교육실습을 다녀오고 2차 시험을 보기 2주 전까지 사후실습을 했습니다. 학점 욕심도 있어서 '내가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수도없이 들었지만, 저를 믿고 도전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재학생 후기가 많지 않기도 했고 실습이나 과제, 학교시험과 효율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웠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실습이나 학교 시험이 있을 때에는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고, 다시 시작하려면 밀린 강의를 따라잡느라 조급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쓴 글들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1. 공부 동기

공부를 시작할 때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에 관심 있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입학 후에 첫 시험을 보고 과에서 1등을 한 뒤로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학점으로 계속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다 보니 어느새 임용 공부를 자연스럽게 목표로 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서 심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꼭 합격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2. 공부 스타일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줄글 보다는 요약본이 보기 편했고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를 듣고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학교 시험공부도 항상 표로 정리해 암기만 하던 것이 몸에 베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날 강의 중 민쌤이 '지금음 요약이 아니라 줄글을 읽어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강의를 처음 들은 1월부터 요약본을 만들고 있었는데 과감히 포기했죠.. 처음엔 줄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줄글을 읽으면서도 눈에 잘 보이도록 저만의 표시를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3. 시간관리

저는 통학을 했는데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걸렸어요. 초기에는 지하철 안에서 확인학습을 그 주차 것만 보며 복습을 했었는데, 서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그냥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기 초에는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에 충실히 했어요. 사실 그 시간에 임용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점이 떨어질까 불안해서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공부를 하며 서술형을 암기하고 저의 교직원에 대해 생각해 보는 등 시험과 과제가 1차나 2차 준비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결국 학교 공부가 임용 공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전문대라 학점이수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6시 7시였고, 밥먹고 씻으면 9시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12시나 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거의 주말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고 평일에는 복습을 반복하는 방식으로요.

4. 일년 스케줄

저는 12월에 보육실습, 6월 교육실습, 12월 사후실습이 있었어요. 사실 실습이 있던 기간에는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어요. 원래 실습이 10월이었는데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임용 준비하는 학생들은 방학기간인 6월에 실습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10월 한달은 학교에 가지 않고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온전히 공부만 한 시기는 1-2월/ 7-8월/ 10월 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독서실을 다녔고,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집중이 잘되었던 것 같아요!

★ 1차 공부방법 ★

1. 개론 (1-2월)

cf. 사례를 주고 점차 잘못된 점과 이유 등을 물어볼 수 있음. <3남이>

장소, 방법, 문제행동의 정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경고를 주어야 하며, **격리 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 문제점: 격리를 사용할 경우 문제이라는 낙인(라벨링)이 적힐 수 있으며 동조효과가 큰 유아기 시기의 특성상 이로 인한 또래의 소속감 박탈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피드백: 행동을 정확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 긍정적 피드백 (미소, 고개 끄덕이기, 박수 등) 등을 활용하고 만약 부정적 피드백을 준다면 긍정적 피드백에 조심스럽게 제공함

※ 행동조성법: (7개월에서 말을 안하는 아이) 1단계: 소근육 강화 → 이걸 행동이 나타날때까지 2단계: 단어 말해줄 강화 →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행동의 형성을 위한 기법들

성법(shaping) **목표행동에 대해 점진적으로(행동의 단계수준과 보상의 수준) 적용하는 접근법**으로 서 점차 바람직한 목표행동에 도달해가도록 유도하는 절차이다. →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목표행동을 소단계로 나누어 한 단계씩 배워나가기 때문에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이나 기능습득에 효과적임

행동연쇄 **보다 복잡한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과제 분석을 통해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보상에 나가게 되는 것으로 행동조성법과 비슷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위계가 있는 과제에 해당한다(예: 글자의 학습).**

암법(fading) **어려운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했던 직접적인 도움을 점진적으로 철회해 나가는 것이다.** **출처 작곡 - Ex. 가래야** 교사: 식물을 먹는 동물을 뭐라고 불러? 초! 식! 동! 물! → 유아: 초식동물
을 정답지킨다. 교사: " ? (작은외로) → 유아: " ? (일모양) → 유아: "

사실 개론은 임용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강의만 듣고 따라가던 시기였어요.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도 분명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책을 피면 처음보는 내용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강의를 들으며 사진과 같이 민쌤 말씀 중 예시를 다 받아 적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시를 적어놓으니 복습할 때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지 쉽게 캐치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또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 사상가 ⑧ 슈타이너 주요 용어 2장. 사상사, 확인학습

슈타이너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크게 3단계 구분하였고, 이를 7년 단위의 삶으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른 특징을 서술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주장하였다. 제 1의 7년기의 가장 중요한 교육원리는 (㉠)이다.

(㉡) 유치원은 슈타이너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의 교육은 인지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인간 본성에 관한 바른 인식과 그것에 기초한 예술로서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슈타이너는 (㉣), 질서, (㉤)의 원리에 따른 수업이 예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은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만이 아닌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에서의 질서와도 연관된다.**

도로프 교육이 시작되기 전 슈타이너는 동작 예술로 (㉦)를 창시했다. 유아는 자
움직임을 통해 받아들이며 익힐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아는 리듬을 배우

개론강의를 들으며 확인학습을 같이 풀었어요. 저는 < 강의 → 책을 읽으며 복습 → 확인학습 문제 풀기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 부분만 다시 강의 듣기 → 대충 암기 → 확인학습 다시 풀기 >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빈칸을 지우개로 지웠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화이트를 사용하고 나중엔 네임펜으로 칠해서 안보이게 했어요.

2. 누리과정 (3-6월)

[illegible]

누리과정을 들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개론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강의를 듣고 평일 동안 복습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어요. 강의를 듣고 확인학습 문제를 푸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이론이 많아서 더 힘들었지만 그만큼 하나씩 이해해 나갈 때마다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저는 웹지도 반에 가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책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종강 모의고사에 나오거나, 확인학습 문제에 나왔던 어려웠던 문제를 책에 적어놓고 그때마다 다시 보았어요. 저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쌤께서 강의 중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더 비중 있게 공부했어요.

사진에 있는 밑줄과 형광펜은 회독할 때마다 다른 색을 사용한 것인데요. 개론때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예습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들으며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볼펜으로 밑줄 긋고, 핵심 단어에는 네모 표시를 쳤어요. 그 이후 확인학습을 풀고 다시 복습할 때 형광펜을 긋고, 다시 읽을 때 다른 색 형광펜을 사용했어요. 여러 번 읽다 보니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도 보이고 맥락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깔끔하고, 눈에 보기 쉽게 책을 정리하고 밑줄치려고 노력했어요. 줄글을 워낙 읽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책에 이곳저곳 날린 글씨가 있으면 오래 보지 못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시험전까지 질리지 않고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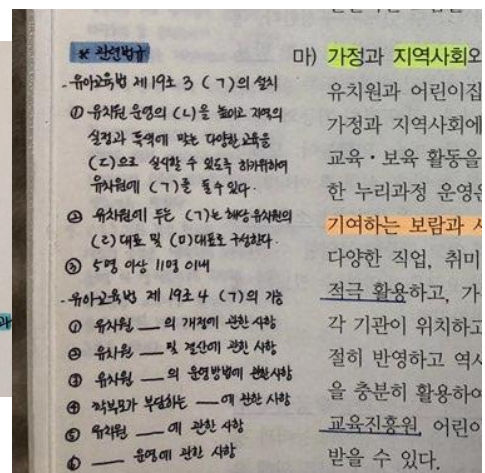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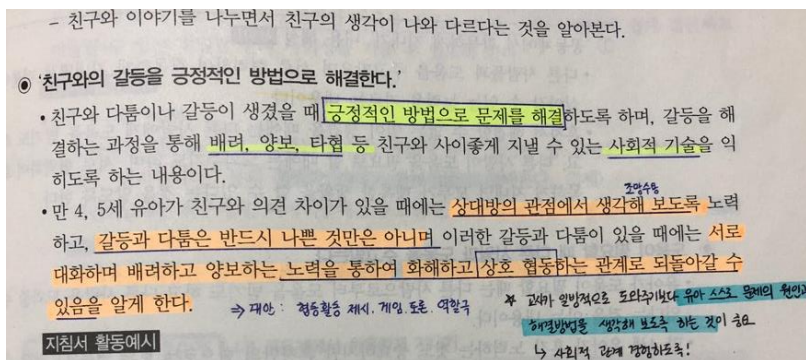
3. 해지서 (3-10월)

(1) 누리과정 강의를 들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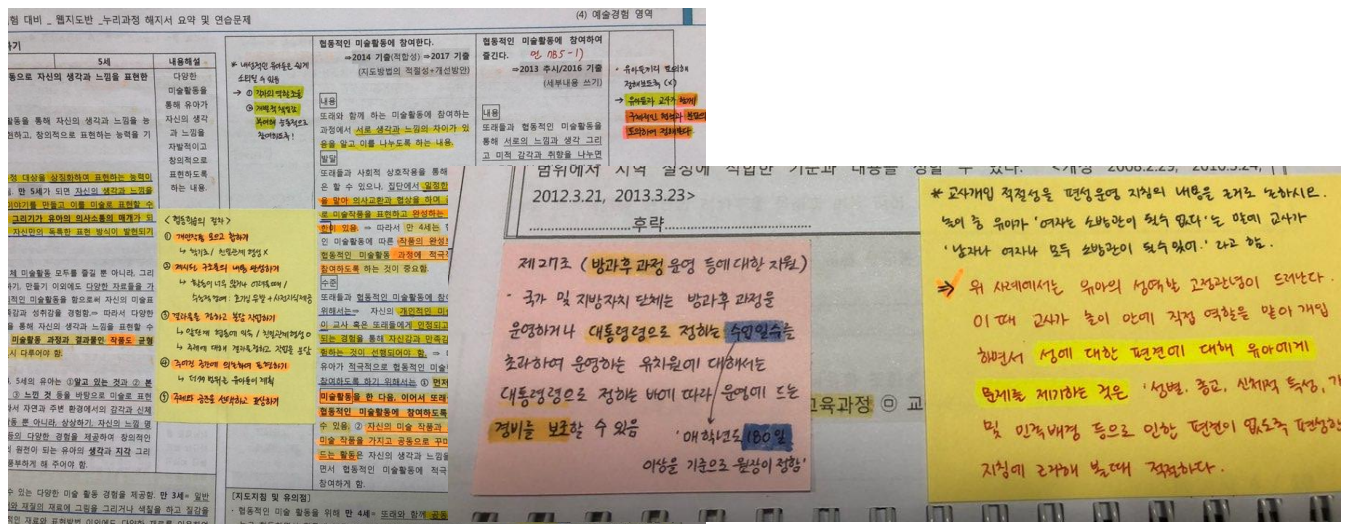
사실 해지서의 중요성을 누리과정 강의를 들으면서도 몰랐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밑줄치고 한 번 읽는 정도가 다였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했구요.

(2) 누리과정 이후, 문제풀이반 시기

나중에 문풀반에 갔더니 해지서에 나온 내용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해지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꾸준히 봤어요. 누리과정 반 때 부록으로 있던 해지서에 관련 이론이나 법 등을 적고 함께 보았어요. 아래 사진과 같아요.



사실 해지서는 계속 미루게 되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부록으로 있던 해지서를 공부하다가 민쌤께서 해지서 요약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에 관련 이론과 법, 4주기 평가,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적고 함께 보았습니다. 해지서를 늦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정리를 한 이후에는 하루에 두 영역씩 보았어요. 이 때에는 이해와 암기, 관련 이론 떠올리기, 찾아보기 등의 방법으로요.



4. 세부내용 암기 (8월 ~)

세부내용은 8월에 암기를 시작했어요. 1월부터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게 그 말 같고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암기를 했어요. 처음에 외울 때에는 **3일에 한 영역을 다 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눈으로 읽고 써보고를 반복했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는 해지서와 같은 영역을 썼어요. 예를 들어 (월- 신체, 의사 : 세부내용 쓰기, 해지서 읽기) 를 하루 공부의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암기를 하다 보면 '~가지고, ~갖고' 등 헛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나중에는 헛갈리는 부분에 네임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illegible]

5. 법 (9월 ~)

법은 9월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법이 나와도 한 문제 일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시간도 부족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샘이 강조하시거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만 보았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저는 라벨스티커를 사용해서 모의고사 회차와 문제를 적어 다시 복습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 자료에도 붙여두고 다시 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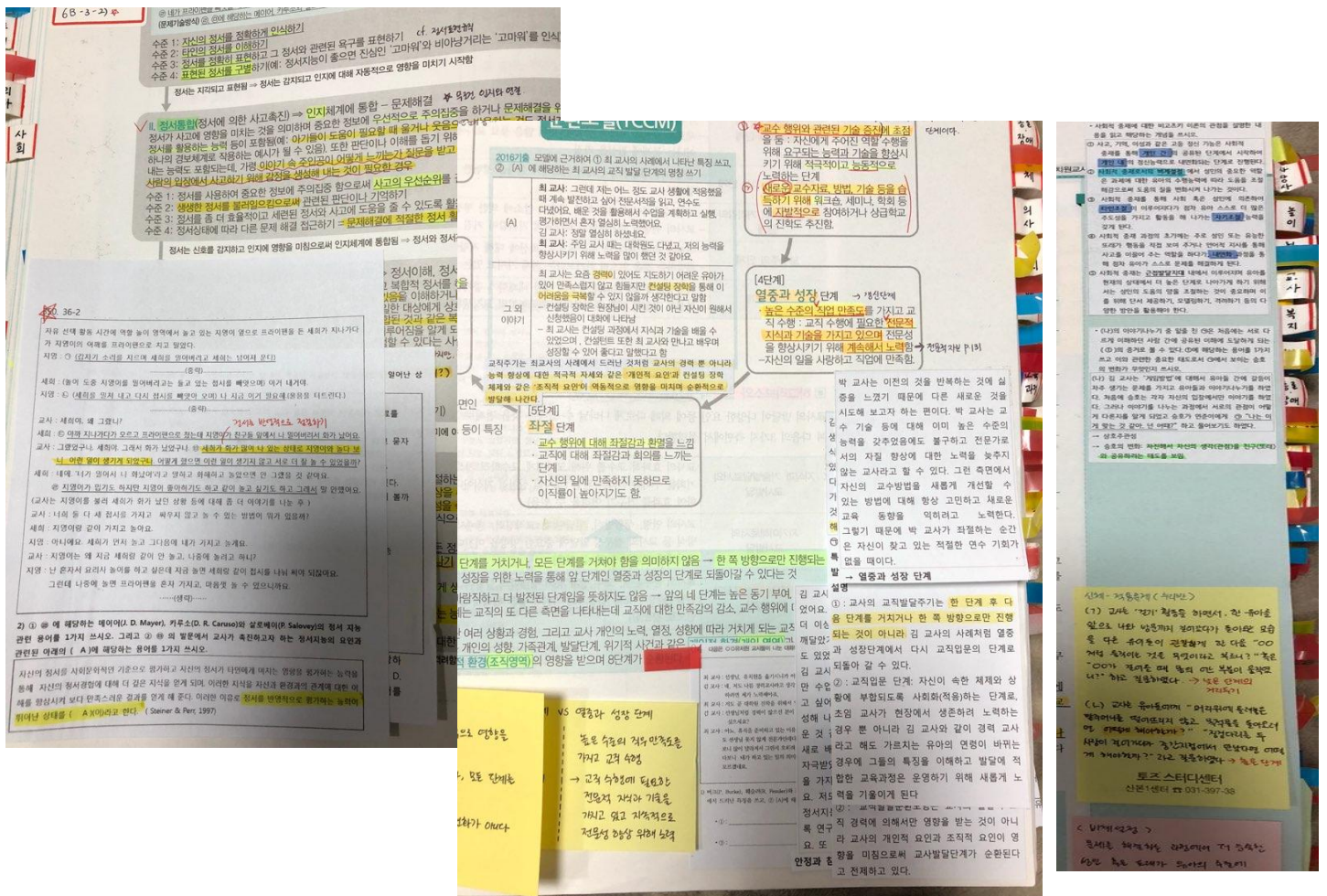
<p>제 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p> <p>3A-6-2 아동학대 전문기관</p> <p>6A-4-1 아동학대범죄의 양형</p>	<p>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p> <p>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p> <p>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p> <p>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p>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B-5번 전체</p> <p>제2조의5(건강검진)</p> <p>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p>
-------------------------------------------------------------------------	------------------------------------------------------------------------------------------------------------------------------------------------------------------------------------------------------------------------------------------------------------------------------------------------------------------------------------------------------------------------------------------------------------------------------------------------------------------------

6. 문제풀이반

문풀반 시작하고 정말 좌절을 많이 했어요. 분명 내가 아는 내용이고 암기한 내용인데 문제를 보면 어렵듯이조차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월-6월에 보았던 책들을 꺼내 다시 줄글을 읽고, 충분히 이해가 된 후에 웹지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암기와 이해를 더해 나갔어요.

문제풀이 자료는 **영역별로 다섯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1회 2회는 이해를 목적으로** 틀린 부분은 다시 책을 찾고 이해를 충분히 하는 목적으로요. **3회 4회는 암기를 목적으로, 5회는 부족한 이해, 암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었어요.** 사실 이 방법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내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채점을 할 때에는 연필, 파란펜, 빨간펜, 형광펜 등 저만의 표시를 해서 자주 틀리는 문제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부분 등을 확실히 캐치할 수 있었어요.** 매번 틀렸던 문제는 워드 작업을 해서 웹지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하는 방법은 답지를 보고 그대로 암기하면서 터득했어요.** 민쌤이 주신 자료는 답이 길었는데, 긴 답을 핵심 단어만 남기고 줄여보기도 하고, 그 답을 외우면서 암기를 완성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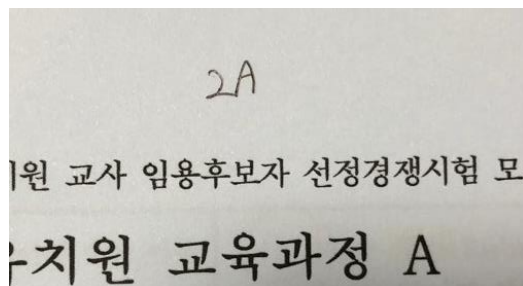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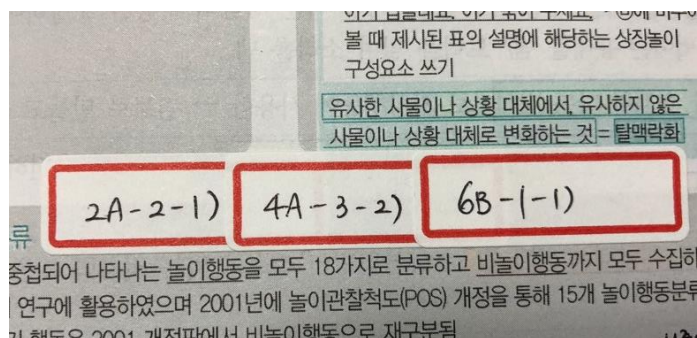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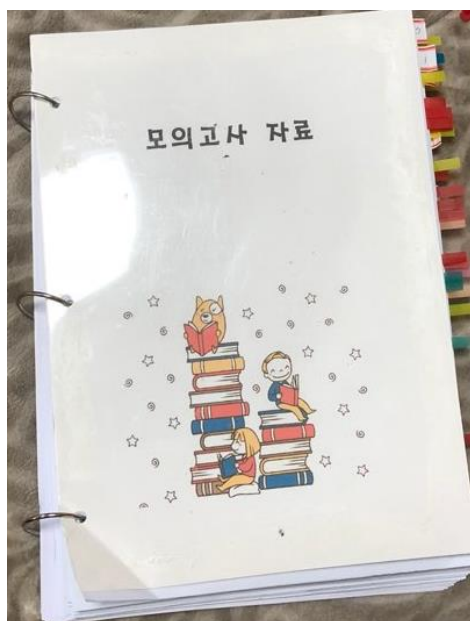
7. 모의고사반

모의고사반 때에는 좌절 + 성취감의 반복이었어요. 어느 회차에는 점수가 정말 높게 나오고, 어느 회차는 반도 못맞추고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또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이론도 문제 방식이 조금만 바뀌면 풀지 못했구요.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실제와 같이 **시간을 지키는 연습**과 답안에 옮길 때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함께 했어요. 문제지에는 맞는 답을 썼는데, 답안지에는 문제 자체를 생략하거나 틀린 답을 적는 실수가 많았지만 연습하다보니 차츰 나아진 것 같아요.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1회차 A형 - 1A) 이런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또 제가 틀린 문제를 웹지도에 붙이고 반복적으로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라벨지를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회차 A형 6번 문제를 틀렸다면 (1A6)** 이렇게 라벨지에 적어 웹지도 관련 이론 부분에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 그 문제를 다시 풀었고, 또 틀린 경우에는 브이 표시를 해주었어요. 또 제가 처음 풀었던 답안지를 함께 모아놓고 왜 틀렸었는지도 보았어요. 덕분에 저도 모르던 실수나 오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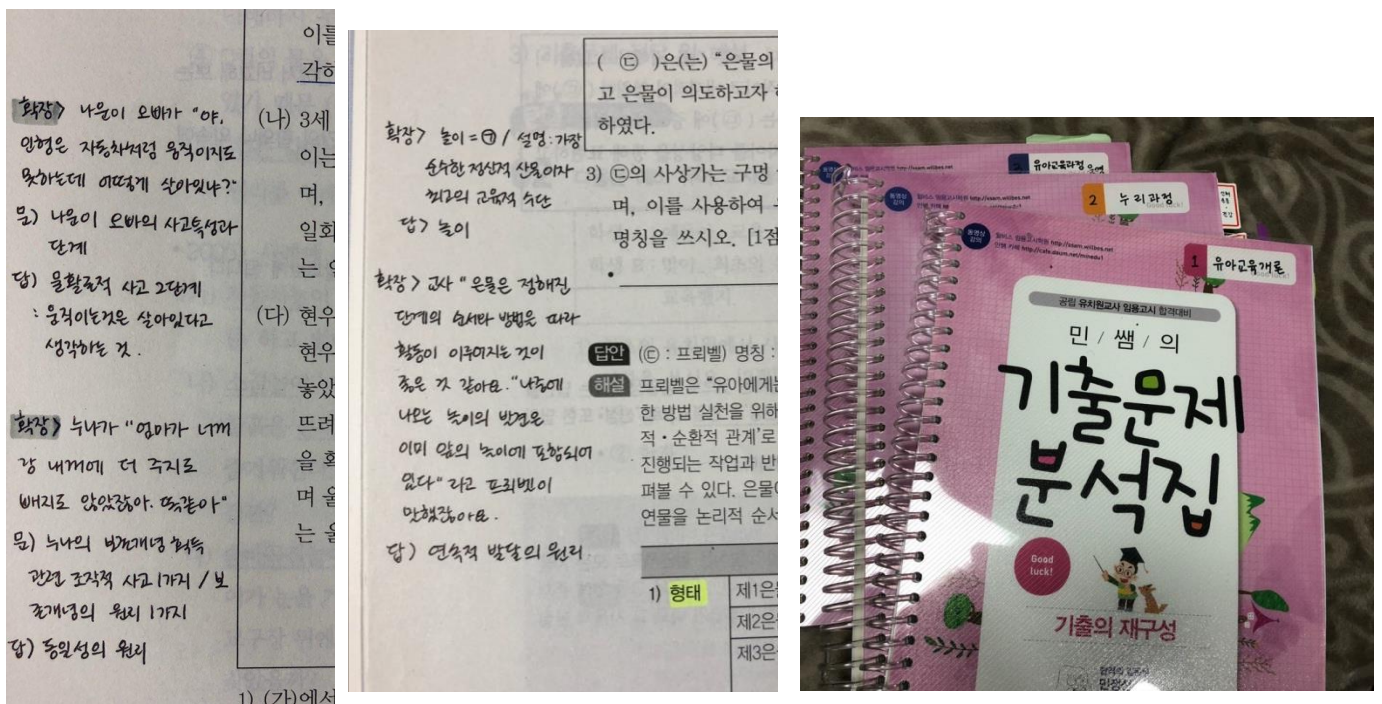
모의고사 반 때에는 내 실력을 점검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좌절하기 보다 '지금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시험때에는 틀리지 말자!' 라고 생각했어요.



8. 기출

기출 문제는 총 4회 풀었어요. 개론과 누리과정을 들을 때 3회, 모의고사 반 때 하루에 한 영역씩 1회요. 초반에 임용시험에 대해 아는 게 없을 때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답 서술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공부방법은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상사 파트라면 (개론강의-복습-확인학습-복습-확인학습) 을 마친 후 기출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었어요. 민쌤이 강의 중 문제마다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서 다시 나올 수 있는지를 언급해주셔서 이해가 더 잘되었던 것 같아요. 또 같은 부분이지만 기출 책에 관련 이론이 나와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정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9. 논술

논술은 8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술 기초반, 심화반, 문풀반, 모고반을 거의 동시에 들었어요. 기초반과 심화반을 2주안에 끝내고 그 뒤에 같은 주제도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씩 썼어요. 논술은 누구나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민쌤이 주시는 참고자료와 개요도를 보면서 제가 쓴 글을 수정하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또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논술도 답이 정해져있는데 시간 안에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글의 맥락을 파악하며 읽는 연습을 하면서 나아졌던 것 같아요. 논술은 저도 알려드릴 공부방법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꾸준히 쓰면 분명 된다는 것 같아요.

★ 2차 ★

2차는 좋은 스터디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한 덕분에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짝 스터디로 진행했고, 하루에 수업2개 면접1개씩 연습했어요. 집단토의는 세번 정도 다른 스터디 선생님들과 모여서 함께 했구요. 스터디 할 때 태도와 표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피드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당일 긴장되었지만 계속 웃는 얼굴로, 바른 태도로 볼 수 있었어요.

(1) 집단토의

집단토의는 연습할 때 바른 태도, 큰 목소리를 중점을 두었어요. 긴 시간동안 토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실제 시험날 바른 자세로 웃으면서 토의할 수 있었어요. 토의가 끝나고 같은 조였던 선생님께서 웃는게 예쁘다고 하셨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앞선 선생님의 의견을 핵심단어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도 연습했어요. 당일에도 '앞서 선생님께서 교육과 돌봄의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했는데, 이때 면접관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서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집단토의 연습은 모두 민쌤이 주신 자료로 했습니다!

(2) 면접

구상형의 경우 처음에는 할 말들을 줄글로 써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로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시선도 고르게 하는 것을 연습했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긴장이 되어서인지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스터디 때 면접연습은 기출문제로 했고,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의논하는 것으로 했어요. 시간은 구상과 즉답 합쳐서 8분, 이후 자성소를 질문하는 것으로 연습했어요.

(3) 수업실연, 수업나눔

수업 실연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수업요소를 다 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수업날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구상지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방법이 도움이 되었어요. 연습할 때마다 수업나눔은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수업나눔 할 때 면접관 세분 모두 고개를 끄덕여주시고 웃어주셔서 용기내서 할 수 있었어요.

(4) 의상

옷은 이틀 모두 같은 옷을 입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숙해보이는 옷을 입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을 골랐어요!



마지막으로...

이 공부가 힘든 이유는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년의 노력과 외로움이 하루의 시험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억울하기도 하고 엄청 큰 부담이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수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큰 슬럼프 없이 공부를 한 데에는 부모님께서 공부를 안하고 놀기만 하던 시기에도 한번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히 믿어주신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살 어린 동생이 독서실 끝나고 집에 올 때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주어서 집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또 문제를 워드로 작업하는 것도 도와준 덕분에 시간도 아낄 수 있었구요. 학교 친구들이 과제를 할 때 항상 배려해주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주었는데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수험생활이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어요. 먼 거리에 살지만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해 할 때마다 꼭 와서 30분이라도 함께 커피 마시면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혼자 밥 먹는 게 싫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가주곤 했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마운 사람들에게 한번도 고맙다고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ㅎㅎ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부모님에게 멋진,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금방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저를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항상 면접 연습할 때 하던 말처럼, 현장에 나가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